

오늘의 기사판

11월)
▲환경사랑 서구녹색어머니회 꽃길조성 씨앗 파종=오전 9시30분부터 풍암지구 마재우체국 앞. 마재우체국~월드컵경기장까지 코스모스 씨앗을 심을 계획.
▲한국국제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발족식=오전 11시 무안군청 회의실.
▲외국인학교·병원 유치 용역보고회=오전 11시 전남도청 투자상담실.
(12일)
▲광주·전남경총 제 791회 금요초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지방이 블루오션이다'에 관해 강연.
▲제 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캠페인=오전 10시 서구 광천터미널 일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대비 일제 대청소=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 주변.
▲마미놀이=11일(목) 오후 3시 해남문화회관 다목적실. 초등학생 문화체험 행사.
▲목요일연국악한마당=11일(목)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시관. 정자경 초청 관소리 출항가.
▲가정사랑 창작음악회=12일(금)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물저림 바람 처럼전=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은용·오경규·박희석 등의 작품 40점 전시.
▲'선(禪) 달마화전'=12일부터 18일까지 목포

환경사랑 꽃길조성 씨앗 파종 풍암지구 마재우체국 앞

문화예술회관 6전시실. 한국화가 성인호씨의 달마도 작품과 자기 등 50여점 전시.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21일까지 광주시 남구문예회관 전시실. 광주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 전시.
▲살레시안 50주년 기념 살레시안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주제가 있는 도서전=13일까지 일곡갤러리.
▲아름다운 우리그릇 생활자기전=16일까지 일곡갤러리.
▲송운 서예원전=11~1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아름다운 그림 걸기전=1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우제길전=6월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 '조대민중미술운동

사전=15일~26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역사속의 오늘

▲원효 대사 세상 떠남(686)
▲시인 김기림 태어남(1908)
▲신소설 작가 이해조 세상 떠남(1927)
▲삼, 나라 이름을 타일랜드로 바꿈(1949)
▲국내 첫 텔레비전 시험 방송(1956)
▲해외이민령 공포(1959)
▲초대 국무총리 지낸 청산리 전투의 이범석 세 상 떠남(1972)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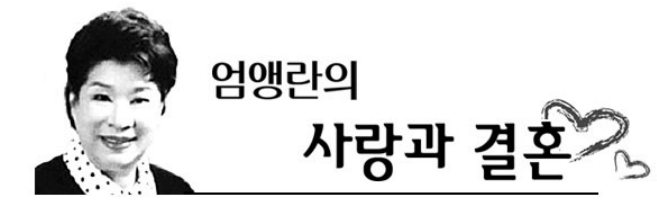
11. '1천만달러' 소녀로 불리는 이 여자선수가 최근 인연 영종도에서 열린 남자대회인 한국프로골프(KPGA)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처음으로 컷 통과에 성공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여자 골퍼가 남자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3년 SBS최강전의 박세리(CJ)가 이어 두 번째로, 이 선수는 7차레 상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가 성공해 7전8기를 이뤄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위성미 ② 김미현 ③ 장정 ④ 안시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18) 어리석은 자들은 서두른다

매사에 있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사태를 망치는 경우가 십중팔구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남녀가 사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김모(32·회사원)씨는 최근 딱 자기 스타일인 여인을 발견했다.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갖고,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가 가장 좋은 배우자같지만 지론의 소유자인 김씨 대상이 된 여인은 김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모(여·28)씨였다. '용기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서양격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김씨인지라 어느 날 사내 휴게실에서 그 여인에게 과감하게 말을 붙였다.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합시다'라고 김씨의 제안을 받은 이씨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 후로 이씨를 볼 때마다 같은 제안을 했고, 계속

거절하기도 미안했던 이씨는 어느 날 결국 김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밤,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김씨는 이씨에게 "두 달 정도 당신을 지켜와 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와 사귀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씨는 어안이 벙벙한 느낌을 받았고, 김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쾌한 심정으로 변해갔다. 결국 그날 술자리는 이씨가 집에 가겠다고 먼저 일어섬에 끝이 났고, 이후 이씨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김씨의 만나자는 요청에 번번이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중학교 국어교사인 나모(33)씨는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기모(여·

엔 만사를 제쳐놓고 기씨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렇게 둘의 만남이 4차례 정도 있는 후였다.
나씨는 질질 끌기 싫었다는 생각에 결혼을 서두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하자는 말을 직접 하기가 좀 어색해서 소개해준 어머니 친구를 활용, 나씨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후부터 기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씨는 그렇게 돌본 한 기씨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김씨나 나씨가 실재한 이유는 다르지만 성급함에 있었다.
여자는 관계에 있어서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게 보통인데, 두 남자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녀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역사사지 차원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자들이여! 여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성급하게 들이대지 말고 step by step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그래야 진정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지니!!
대표컨설턴트 엄앵란 (1588-6665)
www.daksclub.com
<닥스클럽> 대표컨설턴트

남자들이여! 성급하게 들이대지 말라

27·학원강사)씨를 만났다. 기씨는 나씨의 호인형 외모와 유머감각에 높은 점수를 매겼고, 집어다가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어머니 친구로부터 기씨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전갈을 받은 나씨, 실은 나씨 역시 기씨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씨는 속으로 "드디어 장가를 갈 배우자감을 만났구나!"라고 외치며 들뜬 기분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나씨는 매일 2차례씩 전화를 걸어 유쾌한 대화를 이어갔고 주말

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역사사지 차원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자들이여! 여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성급하게 들이대지 말고 step by step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그래야 진정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지니!!
대표컨설턴트 엄앵란 (1588-6665)
www.daksclub.com
<닥스클럽> 대표컨설턴트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nnotations. Includes '참고도 1' and '참고도 2'.

바둑소식 (Go News) section. Includes '윤준상, SK가스배 2연승' and '운준상, SK가스배 2연승'.

바둑소식 (Go News) section. Includes '윤준상, SK가스배 2연승' and '운준상, SK가스배 2연승'.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section.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te 5월 11일.

굿모닝 잉글리쉬 <643> business-minded. Includes English text and Korean explanation of the term.

오하이오 니혼고 <643> たいしたことじゃないんだけど... Includes Japanese text and Korean explanation.

니하오 풍구워 <391> 我只会说一点点. Includes Chinese text and Korean explanation.

한자 이야기 <261> 厚顔無恥 (후안무치). Includes Chinese text and Korean explanation.